

가르치는 교회▪전파하는 교회▪봉사하는 교회

표어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1. 영적부흥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2.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3. 21세기를 감당하는 일꾼을 키워내고,
4. 지역사회를 인도하고,
5. 세계선교에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월 행사 안내

11월 16일(주일)
감사주일

11월 19(수) - 21일(금)
청년 코스타

11월 26일(수)
교육부서 수요모임 '토브' 종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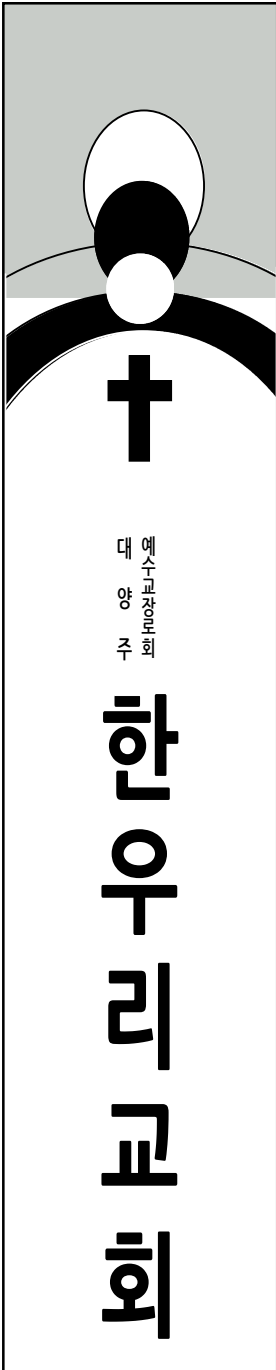
12월 6일(토)
새싹학교 발표회

12월 7일(주일)
정기 제직회

담임목사 **남 우 택** (Stephen W. T. NAM)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442-1457

Hanou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대 예수교장로회
양주

주일예배

예 배 순 서

1부 8:00 2부 10:00 3부 12:00 4부 2:00 사회: 1부/안현수 2부/최영두 3부/이성민 4부/이효빈

- 예배부름 사 회 자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 께
- 경배와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다 함 께
주께 감사하세
- 봉헌 및 1부/ 손보영 장로 2부/ 고현숙 권사 3부/ 조중면 장로 다 함 께
대표기도
- 성 경 살전 5:18 사 회 자
- 찬 양 2부: 은혜 시온찬양대
3부: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찬양대
- 말 씀 새 삶을 여는 하나님의 로드맵 7 남우택 목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 찬 양 약한 나로 강하게 다 함 께
내 평생 사는 동안
- 축 도 설 교 자

<4부 예배 순서>

- 경배와찬양 다 함 께
- 봉헌 및 형 지 원
대표기도
- 찬 양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가브리엘찬양대
- 말 씀 시 100:1-5 김진영 목사
감사하고 찬양하라
-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1부/ 이강용 장로 2부/ 임상규 장로 3부/ 임광순 권사 4부/ 홍소연 청년

수요일예배

저녁 7시

청년 코스타

(다음 주 기도: 손동욱 집사)

교 회 소 식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알림

1. 한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예배가 모두에게 은혜롭게 드려지기
 위해 예배당 내 음료수 반입과 예배 중
 휴대폰 사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오늘(16일)은 감사주일입니다.
 한해 동안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 오는 수요일예배는 코스타로 진행합니다.
5. 다음 주 수요일예배는(26일) 교육부서
 수요모임 '토브' 종강예배로 드립니다.
6. 재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감사절 온라인 헌금 코드는
 '11 Thanks G'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목상교재 '복있는 사람 11/12호'를 교회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10)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KOSTA NZ

- 주제: Here I stand Holy Ground
 내가 선 곳, 거룩한 땅. (출 3:5)
- 날짜: 11월 19(수) - 21일(금)
- 장소: 한우리 교회

"헨델 메시아" 제8회 연주회

- 날짜: 11월 22일(토), 저녁 7시
- 장소: 파넬대성당(HolyTrinity Cathedral)

교육부서

- 교육부서 수요모임 '토브' 2025년도 종업식:
 11월 26일(수) 저녁 7시, 본당
- '토브키즈' 연합 올림픽:
 11월 19일(수) 저녁 7시 바울홀

세례/입교 및 유아세례 안내

세례/입교 및 유아세례가 12월 21일(주일)에
있습니다.

- 교육일정: 12월 6일, 13일, 20일(토)
 1시 - 3시 조이홀
- 문답: 12월 20일(토) 1시 사랑부실
- 입교 신청자는 만14세 이상으로 성경일독을
 미리 하시고, 세례 신청자는 만14세 이상으로
 성경일독 또는 한우리교회 유튜브채널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총18강을 미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HanouriTV>)

- 문의: 안현수 목사 021 0863 7987

전도부

- 전교인 거리전도: 오후 3시에 브라운스베이
 스타벅스 건너편에서 시작합니다.

월	일	목장/사역팀 거리전도 스케줄
11	16	블라디보스톡 / 헤세드 누쿠알로파
	23	누수단로고스 / 솔로몬 제도
	23	칠레파타고니아 / 브엘세바이스라엘

교우동정

- 혼인
 권정호장로, 강현정권사의 자 주형군과
 최다연양이 지난 12일 혼인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천
 이정복집사(김영실집사)가 지난 14일
 모친상을 당하였습니다. 유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우를 위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 나로 강하 게 가난 한 날 부하 게
 눈먼 - 날 볼 수 있 게 주 내 게 행 하 셴 네 -
 호 - 산 나 호 - - 산 - 나 죽 임 당 한 어 린 양
 호 - 산 나 호 - - 산 - 나 예수 - 다시 사 셴 네 호 -
 네 - 내가 - 건 너 야 할 강 거 기 서 내 죄 씻 겼 네
 이제 - 주의 사 랑 이 나 를 향 해 흐 르 네 -
 깊은 - 강 에 서 주 가 나 를 일 으 키 셴 도 다
 구 원 의 노래 부 르 리 예수 자 유 주 셴 네 -

목장소식

주님과 함께 하는 한우리 푸른목장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코 람 데 오	1 로DEM	김승기	21575899	온 유	37 베다니	이강용	21977942
	2 예멘	형재홍	2102945114		38 인도네시아	채제섭	21424199
	3 제주한라	이상용	21821190		39 미얀마	신동명	21719167
	4 멜번	지영철	2102750720		40 도우라안디옥	황용선	21399603
	5 드레스덴	김지석	0210302829		41 Kia Ora	이경현	2102750654
소 망	6 하얼빈푸른	김영현	211721138	무 지 개	42 한국 다음세대	정민혁	21630912
	7 낮은 울타리	주성은	2108354513		43 중국무지개	이성열	274573211
	8 우크라이나	김형수	275622266		44 브엘세바이스라엘	김태원	21677132
	9 느헤미야	이정석	21868075		45 터키오네시보로	김태성	212168531
	10 선한사마리아인	권효남	212627967		46 감비아	김규영	220299838
사 랑	11 바울 로마	오 훈	2102859399	임 마 누 엘	47 베뢰아	이재용	210480543
	12 스칸디나비아동행	김용태	274711446		48 필라델피아푸른	임상규	2108661226
	13 바나바	김종국	21654688		49 인도원달라	안병우	2108491788
	14 바누아투 푸른	남성주	2102701990		50 히엘 필리핀	한진호	272710948
	15 야베스	김성민	212595119		51 베트남	김형석	21453862
다 윗	16 블라디보스톡	민봉식	211063498	약 속	52 이리안자야쁘대나	채금희	21569056
	17 헤세드 누쿠알로파	김용희	211282102		53 양의문	조종면	275325423
	18 수단로고스	김성국	272714894		54 말라위	여운영	225439531
	19 솔로몬제도	송현호	2102954933		55 북한개성	주윤태	2102847491
	20 부르키나파소	권정호	21556934		56 키르키즈스탄	김태중	2102529797
빛	21 오사카	김택원	220806738	성 결	57 일본	손동욱	212043531
	22 가나	이광일	212179303		58 러셀	안응진	211821185
	23 가데스바네아	허진희	2102308976		59 노스쇼어	오현중	273206245
	24 파푸아뉴기니	원재호	21473018		60 LA	정두련	211365151
	25 천국 나그네	강성배	211069821		61 오타라	이준영	21410884
우 리	26 서울, 빛의 마을	전은호	2041616256	민 음	62 이레	이의섭	210497628
	27 월드파키스탄	손보영	21380366		63 산토	조기동	2102370987
	28 엘림	이명준	272970117		64 네팔 은혜	구재운	277844645
	29 과테말라 사랑	김휘홍	21730740		65 직가 바울	이군식	21779958
	30 태국사랑	김지연	210316041		66 이집트	박진석	21356818
참 빛	31 월드 모로코	윤수정	272008546	성 결	67 임마누엘 싱가포르	최재인	21524896
	32 Central 오클랜드	임상혁	21878868		68 아비가일	안경옥	2102913234
	33 벨엘	신규식	21417756		69 모스코	노희영	274308322
	34 섬나 호치민	나종엽	21386202		70 카이로스 발리	이경호	272341008
	35 익투스북한	박경배	211705296		71 에베에셀	이민수	21810072
	36 통가	송정순	2102562581		72 캄보디아늘푸른	고현숙	21996653
					73 캄보디아바라크	최진순	211862748
					74 그리스도의 향기 Lexell	심정임	2102386602
교 구	초 원		교역자	3 교구	우리 참빛 온유		이요한
1 교구	코람데오	소망	안현수	4 교구	무지개	임마누엘	이성민
2 교구	다윗	빛	최영두	5 교구	민음	성결	김진영



새 삶을 여는 하나님의 로드맵 7
모든 일에 감사하라 (살전 5:18)

사람은 감사보다 불평하는데 익숙하다보니 어둠의 세계에 스스로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어둠에서 나와 새 삶을 여는 길이 무엇입니까?

1. 사람들이 왜 감사보다 불평을 잘하는지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2.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메시지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보세요.
3. 감사를 하기 위해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메시지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세요.
4. 이번 주 메시지를 통해 내게 주시는 교훈, 은혜를 한가지씩 나누고 함께 기도하세요.

나이지리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 올해 들어 기독교인 7,000명 살해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31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Country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나이지리아 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극단주의 무장세력의 지속적인 박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는 조치다. 이에 대해 국제크리스천컨선(ICC)의 선 라이트 회장은 “이번 지정은 폭력으로 황폐해진 나이지리아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조치가 다른 세계 지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폭력적 극단주의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실제적인 구호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이지리아의 안보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악화됐다. 2023년 볼라 티누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1만 명이상이 살해되고, 수백 명이 납치됐으며, 300만 명이 집을 잃었다. 2025년 첫 7개월 동안만 7,0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살해돼 하루 평균 3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된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한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중세교회와 닮은 한국교회…“종교개혁 정신 되찾자”
16세기 유럽 종교개혁은 ‘본질로 돌아가자’는 결박한 신앙운동이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한 무명 수도사 마르틴 루터는 부패한 교회의 현실에 맞서 95개 조항의 논제를 내걸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원칙들은 타락한 교권주의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외침이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2024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연구’에 따르면, 무종교인의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는 8.9%로 4대 종단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500여년 전 루터의 외침처럼 ‘근원으로(Ad Fontes)’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회의 본질이자 출발점인 말씀과 공동체,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회자 10명 중 7명 가량(68%)이 향후 사역 방향으로 ‘본질적 사역 집중’을 꼽았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기 도 문 사랑하는 하나님, • [나이지리아]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끊이지 않는 나이지리아를 긍휼히 여기사, 복음으로 회개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한국]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교우를 위해] 건강과 재정, 관계와 신분 등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